



#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,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

## <보도 내용>

- 2025.7.2. 이데일리 ‘[단독] SAF 기준 손본다... 세액공제 확대 등 국정 기획위 보고’ 기사에서
  - 이데일리는 “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정유·항공업계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SAF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, 혼합의무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## <정부 입장>

- SAF(지속가능항공유) 혼합의무제도 도입 관련 세부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, 정유·항공업계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며, ‘25년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산업통상자원부<br>석유산업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한서  | (044-203-522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| 정성훈  | (044-203-5221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국토교통부<br>항공기술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최승욱  | (044-201-4284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진 종 | (044-201-4368) |